

국립공원 불태운 '안전불감 담뱃불'

무등산 새인봉 인근 0.5ha 화재... 탐방객 의식 개선 시급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서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탐방객의 의식 개선과 예방활동 강화가 시급하다.

17일 오전 6시55분께 무등산 새인봉 인근 지역에서 등산객의 담뱃불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청과 광주·전남소방본부가 헬기 3대를 투입하고 소방관 30여명, 의용소방대, 동구청 직원, 경찰 등 120여명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은 화재현장이 급경사 지역인데다 낙엽과 고목이 많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참나무와 소나무 숲 0.5ha를 태웠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곳은 무등산 주 등산로가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서 산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곳여서 무등산 전 등산로에 대한 화기물 수거할 확대와 화재·재난 시설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불이 난 곳에 인접한 무등산 동쪽쪽 다남길 구간은 편백숲길 맨발산책로 구간까지는 휴대전화 통화가능했으나 10여분 거리의 산 안쪽 산불현장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시 통신대책 마련도 제기됐다.

한적하고 비교적 쉬운 코스라 이곳을 자주 찾았다는 정모(54·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등산 중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지만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

큼 담배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아예 가져오지 않는 안전의식을 갖춰 소중함을 불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무등산은 최근 5년간 공원지구 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안전물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불 정리작업 철저히

17일 오전 무등산 새인봉 인근에서 산불 진화작업에 나선 무등산 관리사무소 산불예방단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포스트잇 5박스 뇌물? 선물?

3M, 김세곤 전 지방노동위원장에 쥐 논란

국회의원이 노사갈등을 겪은 한국 3M측으로부터 당시 지방노동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3M으로부터 받은 단순 사무용 포스트잇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노동위원장이 받은 물건의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폭로이며, 뇌물수수의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급속노조의 태도도 신중치 못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한정에(민주통합당·환경노동위)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 회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공개한 것. 이를 근거로 급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김세곤 전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3M측으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은 적 없으며 포스트잇을 선물 받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는 "인사팀장이 포스트잇을 보내줬다면서 문자를 넣었다고 묻기에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새겨달라고 한 것"이라며 "소량을 보낼 줄 알았는데 책 20권을 담은 만한 크기로 5박스가 와 (나도) 어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명예퇴직했으며 현재 한국폴리텍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초교·유치원 놀이시설 '위험'

3곳 중 1곳 안전관리 엉망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3곳 중 1곳은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27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한 결과, 검사대상 308곳 중 32%인 99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놀이시설 3곳 중 1곳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곳에서 같은 기간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중대한 사

고였지만, 학교장은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동안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예산 24억1344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개·보수를 마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낙장행 정 비난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조속히 개·보수하고, 불합격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 다람쥐' 또 절도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관 형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거된 이씨는 지난 1997년부터 1998년 무등산 일대의 매점 등에서 8차례 강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인질극을 벌여 속칭 '무등산 다람쥐'로 불린 인물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교도관 등에 5억 등친 재소자 중형

○사기죄로 수감된 재소자가 대기업 회장의 양자라고 속인 뒤 또다시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중형.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전직 교도관 정모(46)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양자라고 속인 뒤 주식투자를 권유, 정씨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5억 6000여만 원을 챙긴 박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재판부는 박씨가 사기죄로 수형 중 교도관 등을 상대로 또다시 사기를 벌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윤현석기자 chadol@

등산객 흡연 많아도 단속 거의 없어

무등산 입산 금지행위 적발 건수 적어

무등산 탐방 때 금지된 공원 내 취사행위나 흡연 등 입산 금지 행위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무등산 일대에서 취사행위 등 입산금지 행위와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은 건수는 과태료 부과 27건, 계고 1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등산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 팔공산도립공원과 계고 건수반 비교할 경우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입산 구역 입구에 화기물 수거함 설치 등 예방·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 취사행위나 흡연에 대해 정도가 심한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개선돼 취사 등 입산금지 행위가 많이 줄었다"며 "단속 실적이 낮은 것은 정도가 심할 경우에만 적발하고 계도 위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라고 밝

혔다.

그는 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소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산불 등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9조에 따라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지니고 흡연, 목욕 및 섶타, 관리에 장애가 되는 영업 행위 등은 제한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발두령·쓰레기 태우다

전남 곳곳서 잇단 화재

광주·전남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두령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나주시 왕곡면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600여㎡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발두령을 태우다가 불티가 바람을 타고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또 이날 낮 12시 30분께 영암군 시종면 범서 육묘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165㎡)의 일부(66㎡)를 태워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보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중추원 원장 김동관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같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뭉텅텅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목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재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

인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민공]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